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23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이정재(광주교육대 교수)씨가 '지도자 사명과 역할'에 관해 강연.

▲제 49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이병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참여정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

▲21세기 담양포럼=오후 4시30분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 최윤희(카페리아터)씨가 '마음만 바꾸면 나도 백만장자'라는 주제로 강연.

▲제 7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오전 11시 목포 호성웨딩문화원.

<24일>

▲6·25전쟁 제56주년 기념행사=오전 11시 광

주시민회관,

▲루미나리에 거리 토요 이벤트 공연=오후 8시 목포 극장 앞 사거리.

▲제 17회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컴퓨터 경진대회=오전 10시 호남대 광산캠퍼스 4호관. 초등학생 543명·중학생 241명·고등학생 491명 신청.

▲Mopia 정기연주회=23일(금) 오후 7시30분 목포문화회관 공연장.

▲주부 인협극단 인협극 정기공연=23일(금) 오전 10시10분 광주향토문화센터 2층.

▲시립국악원현단 연주회 '기억의 향기(가야금·타악)'=23일(금)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김은영·박명숙 피아노 듀오 연주회=24일

(토)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뮤지컬 '어린 왕자'=24일(토) 오후 2시, 4시 목포문화회관.

▲제 31회 토요 민속여행=24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토문화회관 대공연장. '한마당 춤사위'로리는 주제로 낭만민요·단막 창극·판소리·진도 북춤 등 공연.

▲지산갤러리 기획전 '정재형 초대전'=7월5일까지 지산갤러리.

▲수미회전=28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대학미전=7월26일까지 롯데화랑.

▲'펄레꽃 그려운 날엔'소비 개인전=30일까지 각화문화의 집 문화관람실.

▲월드컵 대구광주 New Vision 모색전 III=25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평화를 노래하는 시화전=30일까지 자마갤러리.

▲장애인의 예술여행전=3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H-MAX 정기 회원전=7월5일까지 일곡갤러리.

▲울해의 작가 '윤예근·정송규'전=7월16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본관 1층. 로비.

역사 속의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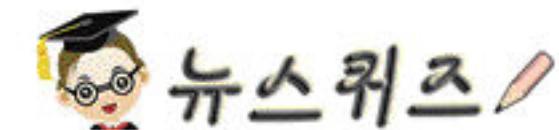
▲쿠베르탱, 파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설립(1894)

▲프랑스의 극작가 장 아누이 태어남(1910)

▲말리크 소련 유엔 대사, 휴전회담을 제의(1951)

▲베를린장벽 최초희생자 추도식, 서독서 거행(1953)

▲박정희 대통령, 평화통일에 관한 6.23 선언 발표(1973)



17. 2006 독일월드컵 한국축구 대표팀이 지난 13일 토고를 상대로 월드컵 사상 원정 첫 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이 2대 1로 승리를 거둔 뒤 인터넷에서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한국 대표팀에 대한 칭찬과 동영상이 쉐어없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천수 선수는 이날 동점골을 넣었고, '반지 세레메니'로 유명한 이 선수는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안정환 ② 이을용 ③ 박지성 ④ 설기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3일(음 5월 28일 쓰未)

36년생 상황이 어려우니 마음을 편히 하라. 48년생 남을 도울 수 있을 때가 행복하니 자신을 배울이라. 84년생 옛 일이 많으니 바쁘게 움직여라. 72년생 가벼운 훈련이 있다. 84년생 옛 일이 괴롭혀온다. 행운의 숫자 : 03. 38

37년생 상황이 급변하니 적절히 대처하라. 49년생 할 일이 많으니 바쁘게 움직여라. 72년생 협조하면 시비는 사라진다. 73년생 꾸준히 전진하라. 그러면 성과가 있다. 85년생 결정은 빠르게 실행은 여유 있게 옮겨라. 행운의 숫자 : 02. 39

38년생 소망은 꿈꾸는 자만이 갖는다. 50년생 협상이 난항으로 양보하며 진행하라. 62년생 계획한 일을 괴롭게 진행하라. 74년생 인생의 맛과 멎을 아는 시기이다. 자신 있게 행동하라. 행운의 숫자 : 10. 27

39년생 눈과 귀가 부드러운 하루로다. 51년생 옛 친구가 찾아오나 마음은 무겁다. 63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할 짤 다가선다. 75년생 갑작스런 재난이 오리니 주변을 살피고 철저히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 04. 33

40년생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니 옛일을 살펴보라. 52년생 좋은 기운을 생각하며 밝게 하니 멎을 있으리라. 64년생 너는 자신의 꿈이나 꿈과 같이 키우라. 76년생 좋은 사람과 만남이 있는 하루다. 행운의 숫자 : 08. 25

41년생 妻家족 사람과 돈거래에 불화가 떠돈다. 53년생 앙보하면 송사도 피해간다. 65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울함은 내 차지다. 77년생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라. 재복이 저절로 찾아온다. 행운의 숫자 : 05. 26

42년생 화재가 보이니 깨진 볼도 다시보라. 54년생 살리는 삼대가 나타나니 일하는 대로 다 주어라. 66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온다. 미움을 다져라. 78년생 속은 터지니 서두르지만 않으면 대凡是 없다. 행운의 숫자 : 13. 37

43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 시비는 본인의 부주의다. 55년생 바라던 일이 일사천리 추진된다. 67년생 물은 고달프고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으니 수양해야 하리다. 79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불리한 일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2. 29

44년생 해질녘에 물어풀이 마무리를 잘하라. 56년생 태인과 시비는 송사를 부른다. 68년생 시비는 팔연으로 화해로 처리하라. 80년생 오후의 와侮은 좋은 일을 부르노니 즐겁게 나가보라. 행운의 숫자 : 06. 39

45년생 중심을 잊지 마라. 집안이 불안하다. 57년생 속진속결전화석 급한 일이 속출된다. 69년생 외적인 화려보다 내적인 실속이 마땅히 써야한다. 81년생 남의 집 잔치에 춤추지 말아라. 자신은 광대로다. 행운의 숫자 : 19. 40

46년생 하던 일에 매진하라. 밭전이 있다. 58년생 부부간에 외출하고 즐겁게 보내리. 70년생 자녀는 고민한다. 부모는 살펴보라. 82년생 형제, 부모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라. 건강이 걱정되고 모습이 흐리하다. 행운의 숫자 : 07. 36

47년생 교통사고 조심하고 음주운전 절대 금물. 59년생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라 자신이 상대방일 것이다. 71년생 춤추고 노래는 하니 마음 또한 즐겁다. 83년생 자가의 위치는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을 기울여라. 행운의 숫자 : 15. 38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검색결정 키워드

검색

'차두리 어록' '박지성 어록' 눈길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기상 정보와 장마철 건강 관리 등에 관심을 보이는 네티즌들이 부쩍 늘었다.

여름철 차량 점검 요령이나 웃자립·집안 청소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는 네티즌들로 장마가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월드컵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특히 지난 19일 열린 한국과 프랑스전은 새벽 4시에도 불구 전국 갈거리에서 수십만명이 몰려나왔고 박지성의 동점골로 1대 1로 무승부를 기록하자 광주의 전남대 후문은 붉은 물결로 얼광의 도가니를 이뤘다.

특히 한국·프랑스전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일궈내면서 박지성의 인기는 폭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박지성과 관련된 글·사진들이 오르내렸다. 네티즌들은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팀과 자신을 함께 상승시키는 힘이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등 그가 한 말들을 모아놓은 이른바 '박지성 어록'

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초등학교 시절 일기도 축구에 대한 진지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화제다.

또 월드컵과 관련, 솔직한 해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차두리 선수에 대한 클릭 세례도 잇따랐다. 차두리 어록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차두리는 지난 12일 일본·호주 경기에서도 '2002년 한국과 미국의 경기에서도 한국이 0대 1로 리드 당하는 상황에서 전반을 마쳤지 않습니까. 당시 하프타임 때 히딩크 감독의 특별 지시가 있었을 텐데, 어땠습니까?'라는 김성주 아나운서의 질문에 "당시 저는 후보여서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후보 선수는 밖에서 몸을 풀어야 했기 때문에 리커룸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라고 솔직하게 답해 화제를 모았는데, 지난 13일 한국·토고 경기 해설을 앞두고 "오늘 독일 언론과 인터뷰했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는 김성주 아나운서의 질문에 "아무래도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으니까, 박

에서 중계를 하는 심정이 어떻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라고 답해 "신선하다", "솔직하다"며 공감을 표시하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차두리역에서 강도 피해를 당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혼성그룹 캔디맨 출신 솔로 여가수 청안(26)도 인기 검색어 대열에 포함됐다. 청안은 '생방송을 가기 전 목상태가 안 좋아 노래에 무리가 있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위를 밝히고 사과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과 최근 일본 후지TV 카메라에 찍혀 관심을 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장의 치남인 김정철(25)도 화제의 검색어에 올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급상승 검색어		〈네이트 디컴 제공〉
1위	장마	6위
2위	프랑스전	7위
3위	이승엽	8위
4위	차두리어록	9위
5위	박지성일기	10위



'강도 자작극'으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청안.



초반 힘겨루기

2회전 제 1보(1~9)

白 박 광주 5단
〈광양체육〉黑 이 강민 5단
〈PCA생명〉

이 판은 2회전의 또 다른 한판으로 신예인 PCA생명의 이강민 5단과 전통의 강호인 광양체육 박광주 5단의 대결이다.

이강민 5단은 전남대 바둑동아리로 유명한 '오로하' 출신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강민 5단의 실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로하는 친목활동을 통해 그 동안 수많은 강자들을 배출해 오며 이 지방 바둑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을 잡은 박광주 5단은 지금은 종

포석이 시작됐다. 1부터 4까지는 평범한 포석이다. 흑이 좌하귀 5로 걸쳐가자 백은 6으로 협공에 나섰다.

흑이 백의 협공을 외면하고 7로 재협공에 나선 것이 폐기만한 수다.

백이 6로 불여 가자 흑이 9로 끌려 초반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백을 잡은 박광주 5단은 지금은 종

포석이 시작됐다. 1부터 4까지는 평범한 포석이다. 흑이 좌하귀 5로 걸쳐가자 백은 6으로 협공에 나섰다.

흑이 백의 협공을 외면하고 7로 재협공에 나선 것이 폐기만한 수다.

백이 6로 불여 가자 흑이 9로 끌려 초반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백을 잡은 박광주 5단은 지금은 종

포석이 시작됐다. 1부터 4까지는 평범한 포석이다. 흑이 좌하귀 5로 걸쳐가자 백은 6으로 협공에 나섰다.

흑이 백의 협공을 외면하고 7로 재협공에 나선 것이 폐기만한 수다.

백이 6로 불여 가자 흑이 9로 끌려 초반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백을 잡은 박광주 5단은 지금은 종